

‘난립’ 쌀 브랜드 대폭 줄인다

전남도 270여개 상품 2013년 22개로

고품질 전략화…‘전남 쌀’ 경쟁력 높여

전남도가 전남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난립하고 있는 ‘쌀 브랜드’를 대폭 줄여 1시·군 1브랜드 체제로 정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전남쌀 브랜드는 공동브랜드 22개와 개별브랜드 248개 등 모두 270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개별 브랜드의 60%에 해당하는 147개가 특정 6개 시·군에 집중돼 있는 등 지역편중이 심하고 관계 전

문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름을 지어 쌀 브랜드로서 부적합하거나 유사·중복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브랜드가 남발되면서 일부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남쌀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이를 난립하는 쌀 브랜드를 1시·군 1브랜드 체제로 대폭 줄여 나가기

로 했다.
오는 중·장기 목표로 오는 2010년까지 시·군별 주력 브랜드 5개 이내로 22개 시·군 총 110개, 2012년까지 시·군별 공동 브랜드 3개 이내로 22개 시·군 총 66개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어 2013년 이후에는 1시·군 1 공동브랜드 총 22개 체제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기준은 한글 기준 7자 이내 간소화, 지역명 삭제, 이름에 ‘쌀’ 또는 미(米) 포함 권장, 휴면 브랜드 완전 폐기, 비 RPC능력 브랜드 폐기 후 시·군 공동브랜드 사용 등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모든 쌀

브랜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뒤 12월 말까지 전남도 브랜드마케팅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부적합 브랜드에 대한 폐기·전환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3년 이후부터 1시·군 1공동브랜드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산물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품질차별화와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 관리가 힘들어 브랜드로서 성공 확률이 낮다”면서 “쌀 브랜드 수를 대폭 줄임과 동시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짤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청바지 보상판매

광주신세계백화점 패션스트리트 점병매장을 9일부터 18일까지 청바지 보상판매를 한다. 현 청바지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점병이 청바지 구매할 때 1만원을 할인해준다.

현 청바지는 자선비자회를 통해 판매돼 수익금 전액이 불우이우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주택연금 가입자수 두달째 증가

지난달 56건 신규 가입

전세나 대출을 끊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 수가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수시인출금’ 제도를 개선해 전세나 기존 대출이 설정돼 있는 주택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수시인출금은 마이너스대출처럼 미리 일정금액(대출한도의 30% 이내)을 한도로 설정해놓고 수시로 찾아 쓸 수 있게 한 주택연금 지급방식이다.

제도개선 이전인 2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중 수시인출금 선택비중은 평균 18%였으나 제도개선 이후 두 달간 신규 가입자의 절반이 53명이 수시인출금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수시인출금은 마이너스대출처럼 미리 일정금액(대출한도의 30% 이내)을 한도로 설정해놓고 수시로 찾아 쓸 수 있게 한 주택연금 지급방식이다.

제도개선 이전인 2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중 수시인출금 선택비중은 평균 18%였으나 제도개선 이후 두 달간 신규 가입자의 절반이 53명이 수시인출금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 ‘형제차’ 대결

기아, 내달초 로체 페이스리프트 출시

현대 쏘나타와 본격 차별화 경쟁 가세

기아차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였다면, 지난 3월 미국 뉴욕모터쇼를 통해 베일을 벗은 로체 이노베이션의 곁모습은 마치 스포츠 세단을 연상케 할 정도로 주목된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로체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의 명칭은 ‘로체 이노베이션(Innovation)’으로 정하고, 현대차 쏘나타와의 본격적인 차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로체 이노베이션의 외관은 기존 로체를 연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폭 수정됐다. 기아차 디자인 책임자인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로체 개조작업에 참여, ‘새로운 차’로의 변신을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기존 로체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였다면, 지난 3월 미국 뉴욕모터쇼를 통해 베일을 벗은 로체 이노베이션의 곁모습은 마치 스포츠 세단을 연상케 할 정도로 주목된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로체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의 명칭은 ‘로체 이노베이션(Innovation)’으로 정하고, 현대차 쏘나타와의 본격적인 차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로체 이노베이션의 외관은 기존 로체를 연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폭 수정됐다. 기아차 디자인 책임자인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로체 개조작업에 참여, ‘새로운 차’로의 변신을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는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교체했다.

기아차는 쏘나타와 차별화된 로체 이노베이션을 통해 우선 내수 중형세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기아차는 작년 한해 총 3만2천 711대의 로체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현대차 쏘나타 11만9천133대, 르노삼성의 SM5 7만3천57대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었다.

하지만 기아차는 로체 이노베이션을 월 5천대 가량 판매하며 일단 중형세단 시장에서 2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는 오는 8월께 세라토 후속 모델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차명을 ‘포르테’(Forte)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4월 수입차 판매 사상 최대

6,153대 신규 등록…전달보다 6.4% 증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4월 한달간 총 6천153대의 수입차가 신규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에 비해 48.4%, 전달인 지난 3월에 비해서는 6.4% 증가한 것으로,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혼다가 1천165대로 지난 3월 1천102대

이어 2개월 연속 ‘1천대 이상 등록’을 기록했으며, BMW 528(412대), 혼다 CR-V(371대) 등이 ‘톱3’에 포함됐다. 아울러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천cc-3천cc 미만 2천345대(38.1%), 3천cc-4천cc 미만 1천689대(27.5%), 2천cc 이상 622대(10.1%) 등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농협 ‘사랑愛’ 적금 판매 돌입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8일부터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적용되는 ‘사랑愛’ 적금판매에 들어갔다.〈사진〉

이 상품은 기존의 고정금리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농협의 ‘큰만족실세예금’ 기본금리에 연동하여 고객이 선택한 금리 변동 주기(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 만기까지 변동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적금 가입기간동에 시장금리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8일 현재 적용되는 기간별 기본금리는 큰만족실세예금 4.2%이며, 주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대 연6.45%까지 받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전남농협 ‘전남보험 에이전트’ 발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지난 6일 보험분야 우수직원 육성을 위해 ‘2008 전남보험 에이전트(Agent)’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보험 Agent란 전남농협의 보험을 선도해가는 우수직원을 말하며, 이번 발대식에서는 전국평가 연도대상 수상자와 Agent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직원간 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멘토링 협약은 연도대상 수상자와 Agent가 1:1로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별 지도를 통해 보험전문가를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덕수 전남본부장은 “멘토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추진, 공제분야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본부 자리를 유지해온 영예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